

‘공한증’은 이제 옛말...신태용호 수비 불안 언제까지?

동아시안컵 첫 경기 중국전 무승부...압도적 공격 불구 수비 실망

내일 맞대결 펼칠 북한, 일본전서 공격수들 움직임 · 파괴력 압도

중국에게 다시 한 번 ‘공한증(한국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심어 주겠다는 신태용호의 비활은 이뤄지지 않았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시티), 권창훈(디종) 등 유럽파가 빠진 상황에서 가동된 플랜 B에서 공격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수비는 실망스러웠다.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인접)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꿴 한국은 중국전의 무승부를 뒤로 하고, 불안한 수비 라인 재건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9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전에서 한국은 전반 초반 수비 라인이 급격히 흔들리며 이른 시간 선제공격을 내렸다. 수비 라인을 잔뜩 끌어올리며 한국을 압박한 중국의 작전이 먹혀들었다. 특히 오른쪽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

든 중국의 공격이 돋보였다. 전반 9분 알리우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웨이스 하오가 오른발 논스톱 슈트로 연결해 선제공격을 뽑아냈다. 한국 수비수들은 패스 길목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실점의 발미를 제공했다. 정신이 번쩍 든 한국은 전반 12분 김신욱(전북)이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고, 7분 뒤에는 이재성(전북)이 골 맛을 보며 역전에 성공했다. 공격은 압도적이었지만 수비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후반 들어 중국이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전환하면서 당황했다. 상대의 전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허둥했다. 중국은 한국 풀백이 오버래핑에 가담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자 그

틈을 노렸다. 좌우 측면에서 마음껏 크로스를 올렸고 후반 31분 유다미오가 머리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장현수(FC도쿄)와 권경원(텐진 취안젠) 두 명의 중앙 수비수들의 대처도 아쉬웠다. 상대 공격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다. 사실상 이 대회에 참가한 수비수들 대부분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시급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상대는 북한이다. 오는 12일 남북전이 예고됐다. 북한은 일본전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골 결정력의 제한은 떨어졌지만 공격수들의 움직임과 파괴력은 일본을 압도했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신태용 감독은 경기 전 중국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겠다고



9일 오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 남자부 한국 대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첫 실점을 하자 주장인 장현수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집했지만 이날 보여준 불안했던 수비는 축구팬들의 믿음을 얻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이 남은 경기에서 수비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타니, 에인절스 입단...“월드시리즈 우승 도울 것”

오타니 쇼헤이(23)가 LA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첫 발을 내딛었다. 오타니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 광장 앞에서 입단식을 가졌다. 이날 오타니의 입단식에는 아트 모레노 구단주, 발리 에플러 단장, 마이크 소시아 감독 등 구단 수뇌부가 배석했다. 등번호 17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오타니는 “팬들 앞에서 뛰는 것이 기대된다. 애너하임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안기고 싶다”는 밝혔다. 일본이 나온 야구 천재 오타니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투타를 겸하며 ‘히도류’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오타니는 지난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닷폼 피이터스에 입단했다. 2년차인 2014년 일본프로야구 최초로 한 시즌 두 자릿수 승수(11승)와 홈런(10홈런)을 동시 달성했다. 지난 시즌에는 10승 4패 평균자책점 1.86과 함께 타율 0.322 22홈런으로 리그 MVP를 차지했고, 팀의 재팬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5시즌 동안 투수로 42승 15패 평균자책점 2.52, 타자로는 타율 0.285 48홈런 166타점을 기록하며 ‘일본의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입단식을 가졌다.

베이브 루스’라는 별칭을 얻었다. 오타니는 “베이브 루스와 비교된다. 그 자체가 영광이다. 아직 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팬 여러분의 응원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타니는 지난 2일 포스트업 이후 LA 에인절스를 비롯해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애틀 매리너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텍사스 레인저스 시카고 컵스 등 여러 구단을 두고 저울질했다.

뉴시스

이근호 “무릎 상태 괜찮다...북한전 최선 다할 것”

“아직 2경기 남아...분위기 가라앉는 것 원치 않아”

“아직 2경기가 남았다. 분위기가 가라앉는걸 원치 않는다.” 무릎 부상 여파로 중국전에서 결장한 이근호(32·강원)가 북한전 필승을 다짐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웨스트필드(보조경기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은 이근호는 “조금 쉬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부상 등 통증은 없다”며 “오늘과 내일 나를 열심히 준비하겠다. 경기를 나갈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는 지난날 27일 울산 전지 훈련에서 휴식과 훈련을 반복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6일 일본 땅을 밟은 이근호는 대부분의 훈련을 정상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전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됐지만 신태용 감독은 “무리하게 출전시킬 이유가 없다”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를 제외시켰다. 승리를 자신했던 중국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한국 입장에서 오는 12일 북한과의 2차전이 중요해졌다. 이근호는 북한전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이근호는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울산 소집 훈련 도중 무리가 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무릎에 불이 찔는데 심한 것은 아니다. 의무실에서 관리를 잘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전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분위기를 잡으면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김)신욱이가 선발로 나서 예전과 다른 특점을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남 대표팀은 중국전이 끝나고 경기장에 남아 이어진 일본과 북한전 경기를 전반기만 관망하고 속수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이근호는 “확실히 수비 시에는 모든 선수가 참여하더라.



밀집 수비를 펼치며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역습이 빨랐다. 상대가 역습을 할 경우 우리가 차단을 한다면 빈 틈이 있을 것이다. 빠른 공수 전환을 하면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아직 2경기가 남아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북한전 준비에 나섰다.

뉴시스

안팎으로 ‘악재’, 평창이 흔들린다

참가 놓고 미국내 엇박자...정부 차원 대응 필요 지적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일부 국가들은 좋은 성적이 아닌 참가 자체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7일(한국시간)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해 자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가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 중 “나는 그것(미국의 평창 참가)에 대해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는 진제가 생략된 것이 뒤늦게 전해졌지만, 미국이 평창 행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백악관의 행보도 오락가락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다음날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할 지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해의 소지를 의

심한 듯 30분 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을 둘러싼 미국 내 이상 기류의 중심에는 ‘공공의 적’ 북한이 있다. 한국인에게는 스포츠 바이블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NBC 뉴스 스태프들이 김정은으로 인해 평창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취재진은 평생 한 번 접기 어려운 올림픽 현장 취재를 원하지만 대회장소가 북한과 인접한 평창이라는 점이 이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NBC는 올림픽 주관 방송사다. 첫 국내 개최 동계 올림픽이 될 평창 대회는 이미 수많은 악재로 생채기가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가가 주도해 조직적인 도핑에 나선 러시아의 평창 대회 출전을 봉쇄했다. 개인 자격 출전의 길은 열려왔으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한국행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는 이에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소속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이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었다. 개최 준비에 한창인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 편이다. 도무지 내려올 줄 모르는 숙박비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고 법적 규제까지는 어렵더라도 도가 지나친 숙박비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올림픽 전후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평창 대회는 역대 최악의 동계올림픽으로 남을 수도 있다.

뉴시스

“손흥민, EPL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하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9일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 시티와의 경기 후 팀의 2번째 득점에 성공한 뒤 동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자신의 득점 외에도 전반 21분 상대방의 자책골을 이끌어내는 크로스로 선취 득점에도 기여했다.

영국 언론이 손흥민(토트넘)에 대해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9일 지정(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 시티와의 2017~2018 EFL 16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 2일 왓퍼드와의 리그 15라운드, 7일 아포엘(키프로스)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벌어진 스토크 시티와의

경기 연속 골이다. 이에 화답하듯 영국 텔레그래프는 10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하나”라며 “이런 표현은 진부하지만 손흥민은 펠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케인 등 토트넘 공격진 4명 중 선발 출전이 가장 적다. 그럼에도 팀이 최고가 아닌 상황에서 손흥민이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에릭 라멜라가 정상 컨디션 찾으면 손흥민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손흥민은치고 나가고 있다”며 “오히려 알리가 부진하다. 아마도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알리일 것이다”고 보았다. 이날 손흥민의 골은 시즌 7호이자 리그 4호다. 이날 들어 3골(리그 2골)을 터뜨리며 특유의 골 몰아치기가 시작될 조짐이다. 영국 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 드닷컴은 이날 손흥민에게 임팩트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9.3을 줬다.